



It's time to turn over the last page of this year's calendar. You have made all-out efforts throughout this year, keeping your eyes to the future. Looking back on this year, let's say thank yourself for all your efforts you've made so far. 어느덧 12월, 2018년의 달력도 마지막 장만이 남았다. 올 한해 앞만 보고 힘차게 달려온 나 자신에게 먼저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어떨까. 다음해를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Adieu 2018! 열심히산 당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When was your happiest moment this year?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현대건설 사우 여러분은 2018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들었던 기억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 Q 올해 당신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은?
What was your "small but certain happiness" you enjoyed this year?
- Q 연말을 더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Do you have a special plan for the enjoyable and happy year-end holiday season?
- Q 올해 고생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A word of encouragement for yourself!



양희지 대리 건축해외사업실

A 올해 회사 앞 꽃집 '미스라일라'에서 꽃꽂이 수업을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진행해주는 사내 꽃꽂이 동아리에도 2주에 한 번 점심시간에 참석하는데, 수업이 있는 날에는 괜히 설레요. 예쁜 꽃을 볼 때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해져요(웃음).
A 연말을 싱가포르에서 보낼 것 같아요. 입찰서 제출을 위해 출장을 가거든요. 업무 차 가는 싱가포르이지만, 따뜻한 나라로 가는지 기분이 좋아요. 덕분에 춥지 않게 2018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올해가 마지막 20대에요. 그래서인지 지난 시간을 괜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수고한 저를 위해 남은 시간 부담 없이 놀라고 말하고 싶어요! 30대가 되는 내년부터는 좀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마리오 사원 토목해외사업실

A One of the best moments of this year was definitely deciding to initiate a new adventure, join this company and participate in some of the most important projects around the world. Also I really enjoy having dinner with my colleagues after work. It is a good time for me to know about each other and spend a good time together.
A Fortunately my family is coming to spend Christmas in Seoul. It is going to be a great time and a different way to spend Christmas with my family members.
A I feel so thankful for the warm welcome that I have received in this new country. I appreciate those who made me feel comfortable in this different culture. I hope next year is going to be even better, if I am able to survive cold Korean winter.



김소연 사원 안전지원실

A 제 '소확행'은 영화였어요. 특히 재밌는 영화가 올해 많이 개봉돼 보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최근에는 1997년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룬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우들에게 추천 합니다!
A 매년 홈 파티를 하며 연말을 보냈어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해를 추억하는 시간은 늘 즐거워요. 올 연말에도 친구들과 신나게 보낼 계획입니다.
A 올해에는 대학 졸업과 현대건설 입사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 변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파우드 사원 건축해외 사업실

A In April, I headed back to Egypt and was welcomed by my family and close friends. I enjoined the warmth of having my loved ones around me and enjoying Egyptian cuisines as well.
A I am planning to have a relaxing weekend in a place where I can enjoy it with my friends. I will visit Seoul Christmas Festival to be held at Cheonggye Plaza in Jongno-gu. Also, I will arrange outings with my friends to the nearby areas of Seoul to enjoy our time together.
A After this successful year here in the head quarter, I always remind myself of being positive and of doing my best at work and in personal life. I have goals of learning more Korean language (basic level at least) in 2019 and reading more books.



백경우 사원 부동산투자개발실

A 올해 가장 행복했던 때는 10월 15일 17시 35분. 제 아들이 태어난 순간이에요. 정신없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면을 빌려 아내 김묘진 사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A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할 계획이에요. 맛있는 음료와 술,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준비해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의 주니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웃음). 저희 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연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더 많았지요. 집도 새로 장만하고, 아기도 태어났습니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버텼다!'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2019년도 파이팅!

Inauguration ceremony for Hyundai E&C Vice Chairman

Newly appointed Vice President stresses pride, communication and business objectives

Hyundai E&C has officially welcomed new Vice Chairman Chung Jin-haeng in the head office, Gyeongdong, Seoul, on December 17.

In his inauguration ceremony, Vice Chairman Chung started his speech by saying that he appreciated the devotion and efforts of Hyundai E&C employees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following the IMF crisis and continue on a solid growth path.

“Hyundai E&C’s blue jackets with the company logo on the front were considered our pride as we played a critical role in propping up

the national economy at that time,” said Chung. “I will do the utmost to help my first company as well as the country’s one of the best companies regain its reputation and instill a strong sense of pride in our employees.”

Moreover, Chung reiterated his roles and responsibilities for achieving imminent business objectives by improving expertise; encouraging internal communication; strengthening Hyundai’s presence with a focus on three segments including automotive, construction and steel; and main-



taining its position of no. 1. builder at home and abroad.

Mr. Chung Jin-haeng has been Vice Chairman of Hyundai E&C

since December 17, 2018.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Strategic Planning Division at Hyundai Motor Company.

현대건설 정진행 부회장 취임식

12월 17일, 계동 본사 사옥 ... 자부심·소통·국내외 수주 1위 목표 강조

12월 17일 우리 회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정진행 부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취임식에서 정진행 부회장은 “IMF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대건설이 건설한 기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후 현대건설 외자부로 입사한 사회 초년생 시절의 일화

로 연설을 시작했다.

정 부회장은 “당시는 현대건설이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는 시절이었기에 현대 로고가 새겨진 파란 점퍼는 직원들의 자부심이자 자긍심이였다”며 “첫 직장이자 국내 최고 기업이었던 현대건설이 옛 명성을 되찾고 직원 모두의 가슴에 강한 프라이드를 지닐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

혔다.

이 밖에도 정 부회장은 ▶전문성 제고 ▶사내 소통 활성화 ▶그룹 3대 부문(자동차/건설/철강) 핵심 축으로서 위상 강화 ▶국내외 수주 1위 목표 등 당면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회장은 “현대건설이 그룹의 모태로서 미래 성

장을 주도하며 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도약할 때”라며 “미지에 대한 도전과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자신감을 갖고 힘차게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정진행 신임 부회장은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현대자동차 아태지역 본부장, 유럽 총괄법인장,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 영도 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 확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부산 영도 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영도 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3가·영선동4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9층, 36개 동, 4458가구의 아파트와 부대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부산 영도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사업의 총 공사금액은 9362억원으로, 우리 회사의 지분은 70%(6553억원)다. 현장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와 2021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진행되며, 착공과 분양은 2022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이 지역은 KTX 부산역과 근접한 것은 물론 부산항대교 및 남항대교 등을 통한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편 우리 회사는 올해 ▶서울 관악구 봉천 4-1-2구역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대전 도마변동 3구역 ▶창원 대원 1구역 등의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개통식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55km)이 12월 12일 개통식을 가졌다.

이 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한 왕복 4차선이었던 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8940억원이 투입됐다. 이 구간의 확장·개통으로 향후 울산과 경주, 영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회사는 전체 6개 공구 중 1공구의 ▶도로 확장 및 연장(8.26km) ▶교량 13개소(411m) 신축 ▶언양휴게소(서울) 확장 ▶언양분기점 선형개량 등을 맡았다.



현장 관계자는 “2011년 12월 착공 후 83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철주야 달려온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며 “언양~영천 간 확장공사 1공구 공사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1순위 마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12월 18-19일 1순위 청약 받는 결과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A3 블록 전용면적 162.691㎡에서 나왔다. 해당 주택형은 2가구를 모집하는 데 37명이 청약해 18.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가구 모집에 67명이 신청한 A4 블록 전용 159.415㎡가 16.75대 1로 뒤를 이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판교 대장지구 A3·4·6 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0층(A3 블록 121가구, A6 블록 464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A4 블록 25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128~162㎡로 구성된 판교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으로 선보인다. 총 11개 타입으로 나와 수요자들의 선택 폭도 다양하다.

PHOTO NEWS

로비를 가득 채운 ‘힐링음악회’



12월 14일 계동 사옥 본관 1층 로비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미니음악회가 열렸다.

공연은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음악대학원 기주희 교

수의 6명과 사내 오케스트라 HPO(Hyundai motor group Philharmonic Orchestra) 멤버 3명의 협주로 진행돼 임직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룹사 뉴스

현대자동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250억원 전달



현대자동차그룹이 12월 1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관에서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날 전달한 성금은 250억원으로, 기탁된 성금은 사회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전달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그룹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UX 공모전’ 시상식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1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롤링힐스에서 ‘자율주행 UX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HMI, Human Machine Interface) ▶사용자 경험(UX) ▶미래 모빌리티 시나리오 전망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전국 각 대학의 56개 팀이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제작 시연 등 세차례의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새로운 여행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세대 ‘뜻밖의현대’ 등 4개 팀이 우수상을 ▶운전 숙련도에 따른 자율주행 활용 방안을 제안한 홍익대 ‘해나온비’ 등 6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현대스틸산업, 국내 최초 대형 해상풍력 설치전용선 건조 착수



현대스틸산업이 국내 최초로 초대형(만3000t)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전용선(잭업바지, Jack-up Barge) 건조에 나선다.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원 이상의 과제수행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다.

현대스틸산업은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0MW급까지 설치가 가능한 차세대 설치전용선 건조에 착수했다. 새로운 잭업바지는 설치 효율이 약 2.5배 향상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 이동 가능한 자항선 ▶국내 최초 크레인 일체형 설계 등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

Park Hang-seo works his magic again

Dec 18

Vietnamese football team head coach Park Hang-seo led his squad to another historic achievement on Dec. 15 - winning the Suzuki Cup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After finishing with a 2-2 draw against Malaysia on Dec. 11, Vietnam won 1-0 at home during the second leg of the final at My Dinh National Stadium, celebrating their victory in front of 40,000 fans. Throughout the tournament, Vietnam didn't lose a single match.

"I'm really happy to win tonight," Park said during a press conference after the match. "We did our best for two months to ensure that we get this win. The love and support from the Vietnamese people have been immense." Vietnam's success wasn't only exciting for Vietnamese fans - the final match was broadcast live in Korea. By winning the tournament, the team received \$300,000 in prize money. Although the prize money rewarded to the team was \$300,000, Park and the players are expected to receive millions in bonuses.

In addition to the bonuses, by winning the Suzuki Cup, Vietnam will now compete in a friendly match against Korea in March 26, 2019.

After briefly coaching the Korean U-23 team



and K League teams, Park was appointed head coach of the Vietnam national football team in September 2017. Just three months later, Park led Vietnam to a historic run at the 2018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U-23 Championship in China, where the team finished runner-up. The team played fiercely against Australia in the preliminary round before beating Iraq in the quarterfinal and Qatar in the semifinal. But as they surged into the finals, the team hit a snow storm, literally. Many of the team's members had never seen snow before, and the weather conditions affected their play. Still, they pushed through a 1-1 tie until the final minutes of overtime, when Uzbekistan scored the winning goal. More recently, Park led Vietnam's U-23 team to another miraculous run at the 2018 Asian Game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team advanced to the semifinals. Vietnam ultimately lost to Korea 3-1.

Now, Park has set his sights on performing another miracle at the 2019 Asian Football Confederation (AFC) Asian Cup starting in January. Vietnam has qualified for the Asian Cup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and has been assigned to Group D along with Iran, Iraq and Yemen.

"At the Asian Cup, we are probably less competitive," Park said after the Suzuki Cup victory. "I heard that the new president of the Vietnam Football Federation considers the Asian Cup an important tournament. We may not be as competitive, but our team's average age is at 23.5 years. By competing against Iran and Iraq, we'll gain experience. We'll once again prepare for the tournament as a challenger."

By KOREA JOONGANG DAILY



'Aquaman' shows the human side of a hero

Dec 13

D.C. Comics' "Aquaman" - which comes from horror director James Wan of the "Saw" series - is a glorious superhero spectacle that highlights the hero's human side.

Starring Jason Momoa as Aquaman, Amber Heard as Princess Mera and Nicole Kidman as Aquaman's mother, Queen Atlanna, the film opens with Atlanna fleeing from an arranged marriage and falling in love with the first man she sees on land. After giving birth to Aquaman, she is forced to return to the sea to protect her husband

and young son from the Atlantean soldiers who pursue her. Things start to pick up years later when Aquaman decides to confront and fight his half-brother Orm (Patrick Wilson), the current king of the underwater kingdom of Atlantis, who wants to wage a war against the surface world.

Wan explained that he tried to create "eye-catching underwater scenes" by creating moments of suspense, shock and horror, which become evident through the inclusion of the monstrous and barbaric creatures of the Trench.

By KOREA JOONGANG DAILY



Hyundai Motor Group Reveals 'FCEV Vision 2030'

Hyundai Motor Group, which includes automotive brands Hyundai Motor Company and Kia Motors Corporation, announced its long-term roadmap 'FCEV Vision 2030' plan, as the group reaffirms its commitment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a hydrogen society by leveraging the group's global leadership in fuel-cell technologies. Aligned with the roadmap, Hyundai Motor Group (The Group) will drastically boost its



annual fuel-cell systems production capacity to 700,000 units by 2030 and explor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other transportation manufacturers of automobiles, drones, vessels, rolling stocks and forklifts.

Pioneering Hyundai child safety innovation recognised with SAFETYBEST 2018 award

The 'Rear Occupant Alert' system developed by Hyundai Motor has been recognised by the members of AUTOBEST, collecting the prestigious SAFETYBEST 2018 award. The pan-European jury of motoring journalists named Hyundai the winner for its innovative safety technology, which was launched this year in the All-New Hyundai Santa Fe.

AUTOBEST jury members rep-



resent 31 European countries, making it the largest independent motoring jury in the world by the number of countries. The prize-giving will take place at the organisation's awards gala in February 2019.

10 Minute Korean Lessons

Shopping



▶ At a clothing store

더큰 사이즈 있어요?

Do you have a bigger size?
Daw keun ssah-ee-jeu ee-ssaw-yo?

이거 하나 남았어요.

This is the only one left.
Ee-gaw hah-nah na-ma-ssaw-yo.

▶ Other expressions



더작은

smaller
daw jah-geun



남자

men's
nahm-jah



여자

women's
yuh-jah



아동

children's
ah-dong

▶ Related Expression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Ee-gaw awl-mah-yeh-yo?

이거 세일 상품이에요?

Is this on sale?
Ee-gaw say-eel sahnng-poo-mee-eh-yo?

이거 다른 색깔 있어요?

Do you have this in a different color?
Ee-gaw dah-reun seh-k-ggahl ee-ssaw-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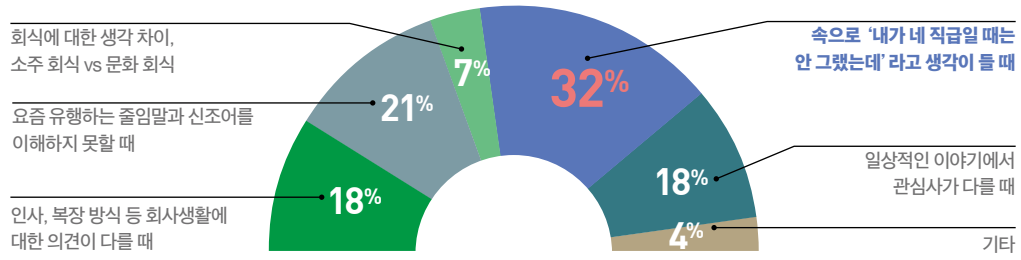
The content above is from 'Korean Phrasebook for Travelers' by Talk To Me In Korean, a company that provides free Korean language learning materials. Check out TalkToMeInKorean.com for further les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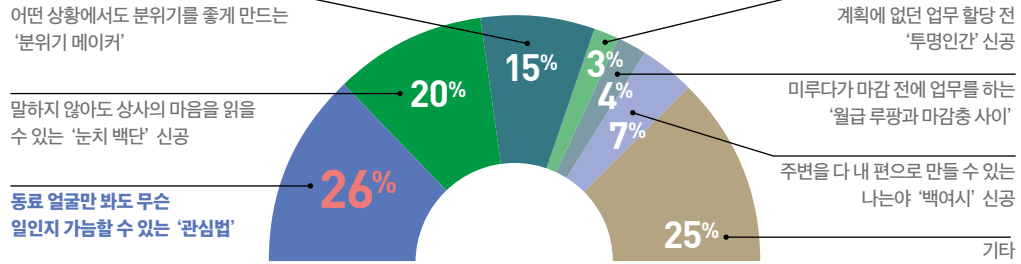
시니어들이 말하는 [현대건설 생활백서]

후배에게 직장생활의 귀감이 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재와 본사를 떠나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회사 시니어들의 어깨가 무겁다. 회사 생활 n년차, 이미 조직 생활이라면 득도했을 법한 시니어들도 질풍노도의 '직준기'가 있었을까, 우리 회사 과정·차장·부장이 진솔하게 답한 현대건설의 조직문화를 살펴보자. 주니어들에게 회사생활 노하우도 살짝 전한다. 조사기간: 11월 23일~30일(금) / 응답인원: 과정·차장·부장 10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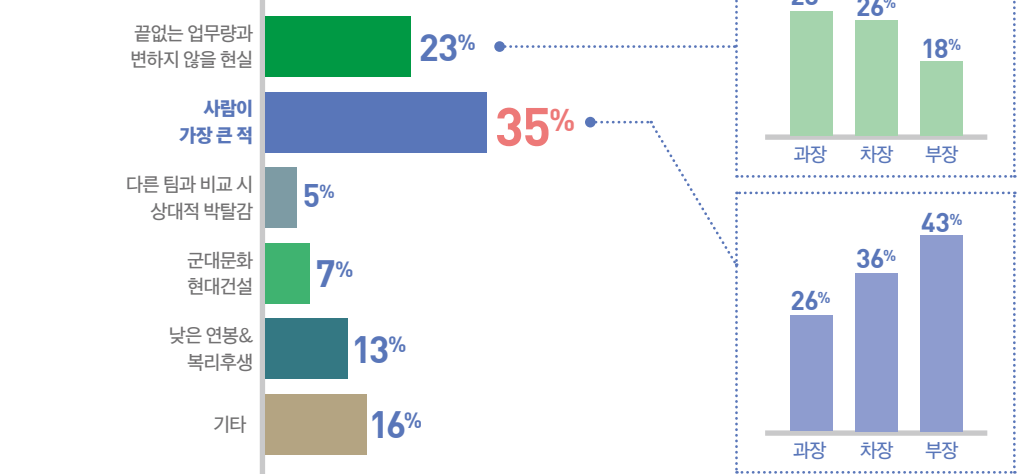
Q 후배와 이야기하며 자신이 '진짜 아재'라고 느꼈던 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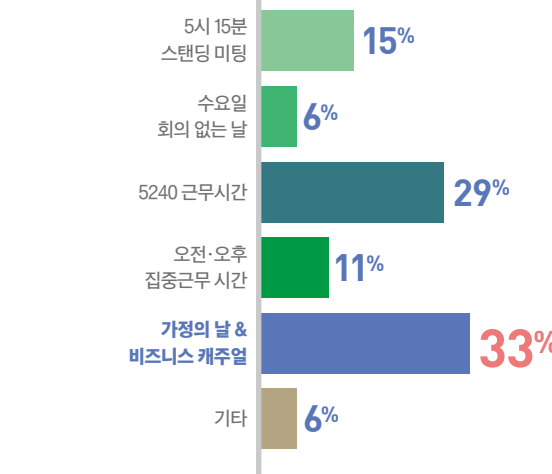
Q 회사 생활의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던 나만의 비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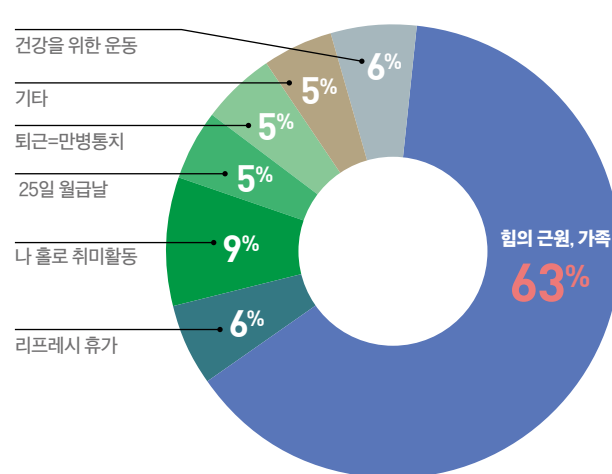
Q 회사생활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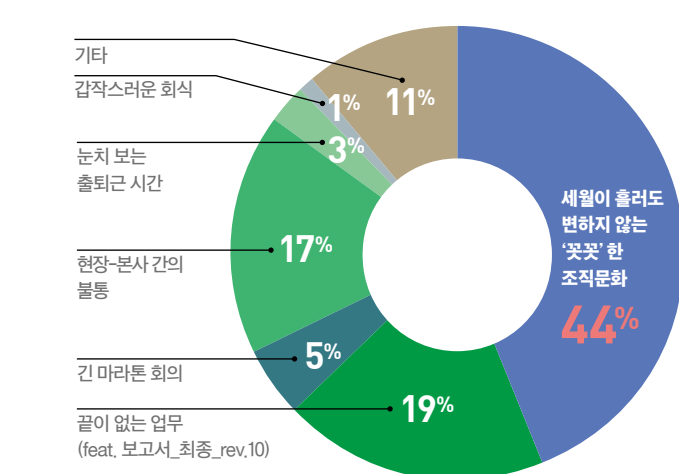
Q 실망하고 있는 제도 중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은?



Q 오래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한 나만의 힐링 테라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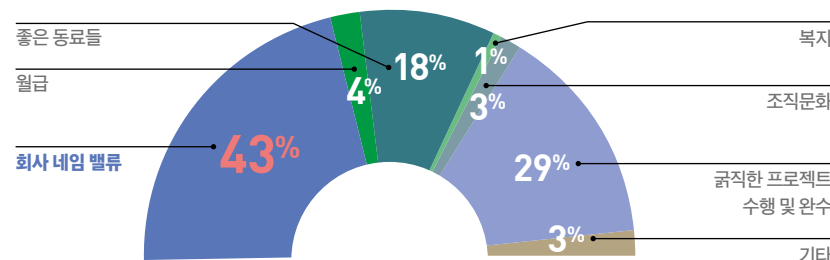
Q 우리 회사 '진짜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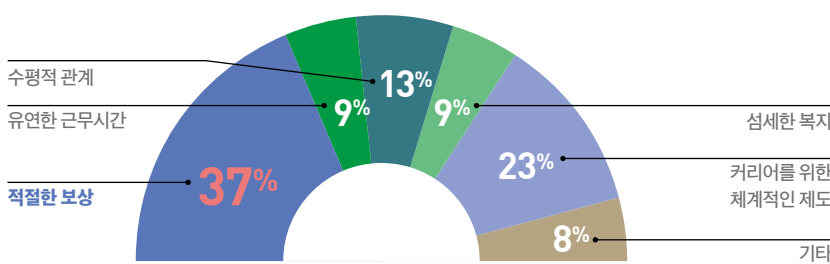
〈사보신문〉은 우리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인 시니어들에게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8일간 e메일을 통해 비밀리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우리 회사 과정·차장·부장들의 (총 1050명)가 감 없는 '조직문화 현황과 회사생활 진짜 백서' 등을 살펴보자. 글=정영하 Tanagemnet 대표



Q 현대건설 '이것'은 정말 자랑하고싶다?



Q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 현대건설에 꼭 필요한 것은?



Q 신입사원에게 이것만큼은 꼭 말해주고 싶다!

#떠나는 대로 자기개발 #업무의 취미생활
#상사와 적극적 소통 #자격증은 꼭 따
#좋은 멘토 찾기 #개인이슈의 탈피해
#열정과 관심
#자기 삶의 포트폴리오 구성

일이 즐거워지는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으로 짝 막힌 조직문화 벗어나기

[현대건설 생활백서] 시니어가 바라본 회사생활 설문 결과에서도 '유연한 조직문화'는 개인과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이끌어내는 유연한 조직문화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글=정영하 Tanagemnet 대표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의 저자 닐 도쉬와 린지 맥그리거는 성과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전략이 중요한 '전술적(tactical)' 성과다. 다음은 상황에 따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적응적(adaptive)' 성과로 유연한 조직문화가 기본이다.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에는 두 가지 성과가 보완적 관계로서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각 성과를 이끄는 동기부여 요소가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이 일을 하는 동기에는 크게 직접적(즐거움, 의미, 성장) 동기와 간접적(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타성) 동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떤 동기부여를 사용해야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

『딱딱한 조직문화』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직급 대상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회사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이 사원·대리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정·차장·부장 역시 회사에서 '근대적 조직문화' (44%)가 정말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회사가 싫어지는 이유로는 '사람이 가장 큰 적'이라고 응답해 시니어 직급들이 업무 외에도 회사 내 사 람 관계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8월 사원·대리 대상 설문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시니어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꽃꽂한 조직문화'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이다. 주니어급 직원들은 '솔대없이 눈치 보는 출퇴근 시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30%나 답했다. 그러나 시니어 직급에서는 같은 항목의 응답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만 놓고 보면 후배들이 앞서서 솔·퇴근 시 뒷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은 눈치 준 적이 없는데 후배들이 앞서서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의 답변에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진짜 아재'라고 느꼈던 순간에 과정·차장·부장 모두 '속으로 '내가 네 직급일 때 안 그랬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나이·세대·직급별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흑시 '틀린'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부당하다고 느꼈던 이전 상사의 모습이 지금 내게서 보이진 않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현대사회를 뷰카(VUCA) 시대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사회 환경을 말한다. 이 단어는 과거에 철저히 전략(계획) 적으로 행동하는 군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빠르게 바뀌는 사회의 불안정한 고요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변화무쌍한 뷰카 시대에서 현대건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수직적, 위계적

조직문화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유연한 전략과 추진력이 뷰카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유연한 조직문화가 현대건설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서 '적응적 성과'를 내기에 적합한 현대건설의 조직문화 중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다.

성장의 원동력 '잡 크래프팅(Job Crafting)'

설문 결과의 주목할 부분은 '성장'에 대한 관점이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 위해선 '커리어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23%)가 필요하다. 특히 부장 직급에서는 29%가 선택해 '적절한 보상' (34%)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주니어 직급에서는 약 8%만 이 커리어 관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적극적으로 커리어에 관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아닐까.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 제도가 있다고 모두가 업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잡 크래프팅(Job Crafting)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직장에서 업무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주어질 일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공예(Craft)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과 맡은 역할을 다한다는 뜻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에일대 에이미 브제스니에프스키(Amy Wrzesniewski) 교수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잡 크래프팅이 나오는지 알 수 있다. 한 대학병원의 청소부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환자의 부모님이 면회를 오면 주차장이 지나가서 모시고 옵니다. 병원 건물이 복잡해서 면회 온 부모님이 길을 잃으실까 환자들 걱정하거든요." 이 청소부는 자신을 '환자를 돌보는 사람(Carer)'이라고 생각해 청소 업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환자의 걱정을 덜어주어 왔던 것이다. 잡 크래프팅이 일어나면 사람은 더의미 있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하려는 성향이 생긴다. 자발적인 잡 크래프팅의 강점은 크게 동기부여·외교·완성·평가·탐구·창조가 있다. 앞서 언급한 청소부의 행동은 남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감정의 발로다.

이렇게 잡 크래프팅은 스스로 업무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일에 대한 개인의 자부심과 몰입도를 높여 좋은 성과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강점을 발휘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 직급이 신입사원에게 말해주고 싶은 내용도 잡 크래프팅의 부분이다. 회사에서 목표를 세워 도전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길 조언

한다. 또한 떠나는 대로 자기개발을 하라고 말한다. 비단 주니어뿐 아니라 시니어 직급들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몰입했는지,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었는지 생각해 자신의 강점과 커리어를 크래프팅 해보자.

조직을 말려 죽이는 마이크로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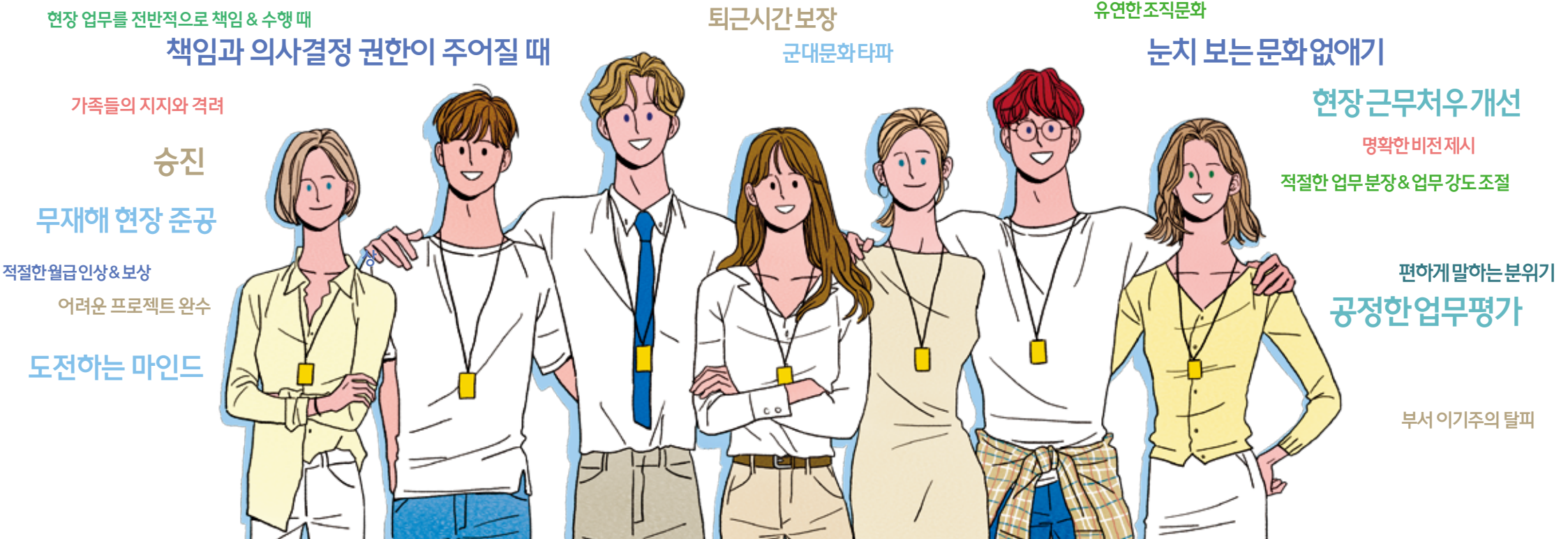
회사에서 잡 크래프팅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일의 목적이 아닌 방법에 집착하고 창의적인 업무 해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몰입감과 업무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다. 『더더시 켈린지』에 나오는 조사에 따르면 '새롭고 혁신적으로 일을 시도할 수 있게 격려하는' 상사 아래에서 '업무상으로 필요하다면 더 늦게까지 남아 열심히 일할' 의향이 94%까지 증가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상사 아래에서는 회사를 위해 헌신할 의향이 5%로 떨어진다. 변하지 않는 조직문화에서는 잡 크래프팅이 어렵다. 설문조사의 답변 중 하나인 '보고서_ 최종_rev.10'에서 업무의 목적에 꼭 필요한 수정은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볼 적 있는가.

『마이크로매니저』는 일하는 목적이 아닌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구성원의 동기 수준을 낮추고 의사결정 역량을 기를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을 서서히 말려 죽인다. 우리가 좋은 업무 성과를 이끌어내는 직접적 동기 중 첫 번째가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다.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의 저자 닐 도쉬와 린지 맥그리거는 '호기심과 실험'이 즐거움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말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이크로매니저는 그런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이전에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에 집착한다. 결정적으로 마이크로매니저는 직원을 리더로 키워내지 못한다.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면서 팀원의 의사결정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다.

본인이 회사에서 '슈퍼맨&슈퍼우먼'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자.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질 때' "하는 업무에 대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했을 때' 같은 응답이 주다. 일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껴질 때 업무의 즐거움, 의미, 성장과 같은 동기가 극대화된다. 사원·대리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신뢰하고 맡길 때 모두가 변화하기를 바란 우리 회사의 '꽃꽂한 조직문화'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설문 결과,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현대건설의 내일 밸류'로 꼽았다. 70년을 넘은 역사, 전 세계적으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저력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다. 하지만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밀레니얼 세대 인재들에게도 매력적인 현대건설이 되기 위해서는 적응적 성과를 추구하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 정신을 독려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현대건설 구성원 모두가 회사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올해 우리 회사를 빛낸 핫이슈 7

Hyundai E&C witnessed another eventful year in 2018: It was rated no. 1 in the 2018 DJSI World for six consecutive years, adopted the 52-hour maximum working week, and successfully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he Terminal 2 of Incheon Airport.

다사다난했던 2018년, 올해에는 DJSI 6년 연속 1위, 주 52시간 시행,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떠나보내며 올해 우리 회사를 빛낸 '핫이슈 7'을 소개한다. 글·정리=박현희



글로벌 인플상

'세계 1위'에도 한번 이름 올린다
올해에도 우리 회사는 세계 최고 건설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업종 우량 기업을 선정하는 '2018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글로벌 건설사 최초로 6년 연속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업종 1위 기업으로 선정된 것. 우리 회사는 9년 연속 'DJSI World'에 편입된 동시에 글로벌 톱 건설사들을 제치고 세계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이 발표한 세계 건설사 순위 (International Contractors, 해외 매출액 기준)에서도 우리 회사가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높은 순위(16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BCA 건설대상 2018'의 주인공도 현대건설이었다. 우리 회사는 이 시상식에서 품질 우수 건설사 부문 대상과 상업-복합개발 부문 최우수상(싱가포르 럭키 타워 콘도미니엄 현장)을 받았다.

Global Top Award

Hyundai E&C maintained its global no. 1 position in 2018. Hyundai E&C was selected as the world's no. 1 sustainable builder for six consecutive years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field of the 2018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DJSI) World. In the Engineering News Record's (ENR) rankings, Hyundai E&C was ranked 16th among International Contractors worldwide, the highest among domestic competitors. In addition, Hyundai E&C won Singapore's BCA Construction Excellence Awards.



변화와 혁신상

주52시간 도입, 기업문화가 바뀐다
지난 7월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며,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Smart Work 5240'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퇴근 시간도 오후 5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집중근무시간'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회의 없는 날', 금요일은 '캐주얼 데이'로 정했다. 매주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시행하던 '가정의 날'도 금요일로 옮겨 편안한 한복장으로 이른 '불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수평적인 조직문화 전파를 위한 기업문화 캠페인도 진행했다. 20~30대 직원들에게 크게 회자된 '고약해 캠페인'은 반대 의견을 존중·독려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고약해-세종대왕 테스트는 4800여 클릭 수를 기록하며 직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Innovation Award

Hyundai E&C brought a change to its corporate culture in July by adopting the 52-hour maximum working week in accordance with a revision of Korea's Labor Standards Act and thereby introducing the Smart Work 5240 which allowed the employees to manage their working hours in a flexible and autonomous way. In order to spread a horizontal corporate culture, it also staged a campaign designed to encourage the employees to freely speak out different views.



최고의 준공상

대형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마치다
준공 소식도 국내외 곳곳에서 들려왔다. 남부 기술력 (TBM 공법 등)을 자랑한 '싱가포르 남북 전력구 터널 NS3', 여의도 면적 3분의 2규모의 '시화발전터크노밸리 1공구',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 '보령 화력 제3연료하역부두' 등의 현장이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 완성됐다. 각종 시상식에서 4관왕의 쾌거를 올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도 6월 준공식을 가졌다. 그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은 2018년을 여는 기쁜 소식이었다. 1월 2일에 준공된 후 18일 화려하게 개장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에 전체면적 약 39만㎡(약 12만 평)를 자랑한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두 현장도 5월과 10월 각각 준공했다. 우리 회사 최초의 지열발전소 현장이자 세계 최대 규모(330MW)의 '인도네시아 사랄라 지열발전소'와 우리 회사의 첫 우간다 프로젝트인 '진자교량' 현장이다.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들을 발판으로 신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Best Construction Award

This year started with good news: Hyundai E&C announced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Terminal 2 of Incheon Airport in January as soon as this year began. It also successfully finished the construction of the Sarulla geothermal power plant in Indonesia in May, the world's biggest and the company's first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Jinja Bridge in Uganda in October, the first project conducted by Hyundai E&C in the African country.



상생과 나눔상

현대건설, 더불어 성장하다
어느 때보다 '더불어 성장'하는 해였다. 우리 회사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고충 해결 창구인 'H-투드림'을 오픈, 우리 회사 임직원과 고객, 협력사의 말에 귀 기울였다. 이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상생펀드 대출 상담회, 건설업계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 (총 200억원 규모), 추석 전 납품대금(1000억원) 지급 등을 실시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올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직원 수는 3883명으로 이들의 봉사시간을 모두 합치면 2만3810시간에 이른다. 우리 회사는 2011년부터 20개국 40개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 10여 개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11월 13일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이는 종로 지역 소외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Win-Win Award

In 2018, Hyundai E&C sought for win-win growth with its employees, clients and partner companies by opening the H Do Dream, providing a consultation with the partner companies concerning the Win-Win Fund, and coming up with the largest financial support program among domestic builders. Hyundai E&C also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social contribution. A total of 3,883 employees spent about 23,810 hours all combined in doing volunteer activities this year.



미래의 주거상

미래 주거의 모습, 현실이 된다
"하이 라라딘! 거실 불 좀 켜줘!" 말 한마디로 집 안 곳곳을 제어하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 지난 3월 데이터이치아이 개포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처음으로 적용한 '보이스홈'은 우리 회사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플랫폼이다. 집 안 곳곳에 부착된 보이스홈 기기가 음성을 인식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올해 입주주민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헬스케어 토털 솔루션'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또한 우리 회사는 데이터이치와 힐스테이트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총 200여명 규모), 추석 전 납품대금(1000억원) 지급 등을 실시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성과를 보였다. 올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직원 수는 3883명으로 이들의 봉사시간을 모두 합치면 2만3810시간에 이른다. 우리 회사는 2011년부터 20개국 40개의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으며, 올해 10여 개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11월 13일 '서울시 사회공헌 대상'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이는 종로 지역 소외계층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Future Housing Award

The Voice Home, a voice recognition platform developed by Hyundai E&C, was first introduced on the market by THE H-Xi Gaepo and Hillstate Rivercity in March. The Hillstate Total Solution was designed to help Hillstate residents relieve their concerns over fine dust. In addition, it announced its new housing model named H-Series developed based on the post occupancy evaluation (POE) of THE H and Hillstate residents. The 2019 version of the H-Series, which is underway, is expected to provide customer-oriented convergence services.



안전한 현관상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는 올해의 화두 중 하나였다. 우리 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유용한 작업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실증체험 공간인 안전문화체험관을 11월 오픈했다. 체험시설은 현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1시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보안을 개선했다. 안전문화체험관은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oT 기반의 현장안전관리 시스템(Hyundai IoT Safety System, HioS) 개발을 완료했다. IoT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관제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공백 시간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웹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테헤란로 257 개발사업 현장에 적용 중이며, 시스템 안정화 후 다른 현장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afety Award

Hyundai E&C opened the Safety Culture Center in November where visitors are able to experience safety-related incidents which may occur at construction sites and learn helpful work safety rules. Moreover, it completed the development of the IoT-based HioS (Hyundai IoT Safety System). The innova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enables users to control construction sites in real time by using IoT technology.



온라인 화제상

업계 최초 웹드라마, 건설업의 선입견 뺀다
온라인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해였다. 우리 회사는 딱딱한 건설 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올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3월과 4월 리얼리티 오픈한 현대건설 페이스북과 기업 블로그는 재기발랄한 콘텐츠를 다채롭게 선보이며,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은 건설업계 최초로 제작한 웹드라마 <설레는 직장청춘,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이다. 토목사업본부에 입사한 신입사원 '현대건설'의 현대건설 적응기를 유쾌하게 그린 우리 회사 웹드라마는 전문 배우 외에도 사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직원 배우까지 출연해 친근감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1편부터 4편까지 총 64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회사는 2019년에도 영상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Online Word of Mouth Award

Hyundai E&C came to the front online this year. To break with the stiff imag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get closer to its customers, Hyundai E&C put more efforts to strengthen online promotion throughout the year. It released its original web-based drama, 'Young and Exciting Hyundai E&C',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Four episodes of the web drama gained attention online with 640,000 views combined.

2018 HYUNDAI E&C AWARDS



2019년 대한민국 트렌드

1인 체제가 뒤바꾼 나의 생활공간

트렌드 따라잡기 '앞으로 소비자들은 무엇을 살까?' 소비자들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공간(Life Space)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 작용한 결과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생활공간은 일상생활 공간, 문화생활 공간, 한국 사회라는 큰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에 담긴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알아보자.

글=송으뜸 『2019 대한민국 트렌드』 공동 저자

'개인 공간'의 확대

요즘은 무언가를 '혼자' 하는 것이 특별한 것 없는 시대다. 홀로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1인 체제는 의식주와 소비 그리고 여가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혼자서 뭐든 다 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공간'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집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방'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과 방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 중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에 바깥에서도 독자적인 공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커피전문점이다. 콘센트를 구비한 개인 좌석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공부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도 증가하고 있다. 나 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코인노래방과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등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유통 채널과 편의시설에서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스마트폰이 강력한 '소통 공간'으로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에서는 관심사에 따라 모인 볼특정 다수가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SNS에는 수많은 일촌과 팔로어가 존재한다.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백 명의 지인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가

적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일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려는 의지가 열어지고 인간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아는 사람에게서 '관계의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도 새로운 추세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큰 탓이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이 주도하는 관계로 재편하고 통제한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가끔은 통째로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이 모든 것이 이뤄지는 소통 공간이자 도구로서 존재한다.

대인관계에서 강해지는 이런 통제 욕구는 소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쇼핑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요즘 소비자들은 직원의 응대가 자신의 쇼핑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원의 관여가 배제된 여유로운 쇼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 의해 키오스크나 무인 계산대 등 비대면 서비스의 전면적 도입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로운 경험을 충족하는 '문화 공간'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텍스트보다 영상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책을 읽기보다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하며, 무언가를 읽고 쓰는 행위 자체를 어색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영상매체와 함께 자라온 젊은 세대에게 영상은 그 자체로 언어이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유튜브(Youtube)의 인기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스터디 카페(사진제공:더블린스터디라운지) 2 요리 유튜버 3 이마트24 무인점포 4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텀블러.

유튜브가 사랑받는 이유는 새로움과 다양성이다.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유튜브는 언제든 새로운 단어로 새로운 영상을 보고, 심지어 같은 키워드라도 매일 제공되는 영상이 달라진다. 유튜브 유저의 관점에서 '다양성'은 검색 결과를 설명하는 용어지만, 사실 근본적인 욕구는 낯선 경험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처음'에 반응하는 까닭이다.

과거부터 인간은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기 위해 익숙한 공간을 떠나는 여행을 즐겨왔다. 하지만 '돈과 시간'이라는 자원의 부족과 만성적인 피로감은 많은 사람에게 여행보다는 휴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집에서 휴식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낯선 경험을 찾았고, 마침내 다양성과 새로움이 있는 끝내주는 공간을 찾았다. 피곤한 몸은 집에 머무르면서 돈과 시간을 아끼며 쉬면 되고 신선한 자극을 찾는 뇌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문화 공간. 이것이 현재의 유튜브다.

새롭게 정의된 '사회 공간'

나만의 시간과 공간, 삶이 중요해지면서 사회문제도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회적 이슈를 내가 개입되어

있거나 혹은 관심 없거나로 구분하는 것으로, 어떠한 사안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이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경이다.

예전에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자세로 환경 문제에 접근했다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겪은 요즘 소비자들은 환경문제를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환경 문제가 결국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만큼 환경오염의 수준이 심각해진 탓이다.

이런 인식 변화에 따라 2019년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난 것은 상징적인 변화다. 예전에는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환경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비단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1인 체제가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양상이 2019년에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유럽까지 갈 필요 없다! 도심에서 만나는 크리스마스 마켓

문화칼럼 어린 시절처럼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답은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투어이다. 유럽처럼 몇 백 년의 전통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도심에서 크리스마스를 만끽할 수 있는 네 곳을 소개한다. 글=이은아 자유기고가



문화비축기지 **모두의 크리스마스 마켓**

한때 안정적인 유류 수급을 위해 매설됐던 서울 마포의 석유 저장 탱크가 작년 가을, 문화를 담은 기지로 재탄생했다. 올해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변신한다. 장소는 중앙 광장에 해당하는 ‘탱크제로(T0)’로 이름 붙여진 문화마당이다. 행사 첫날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거행된다. 많은 이의 소원이 달린 대형 트리가 볼거리를 더할 예정. 맛있는 푸드 트럭과 크리스마스 수공예품,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광장 한쪽에서는 추위를 녹일 수 있는 화목 난로가 설치된다. 고구마, 쥐포, 마시멜로 같은 간식을 가져 가면 직접 난로에 구워 먹을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나무 썰매와 ‘봉봉카’도 준비되며 실내 썰매장도 운영한다고 하니 가족들과 함께 다이내믹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어보자.



기간 12월 22~25일 | 시간 오후 4~9시(25일은 오후 3~7시) | 문의 02-376-8410, culturetank.blog.me
주소 서울 마포구 중산로 87



기간 12월 14~26일 | 시간 오전 11시~오후 8시 | 문의 1833-8855, www.p-city.com
주소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파라다이스시티 **산타 빌리지 윈터 마켓**

9.5m 높이의 초대형 상들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빛을 뿌리고 주변에는 삼점과 노면 전차, 회전목마가 들어서 있다. 마치 이스탄불의 작은 광장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북함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쇼핑광장이다. 오는 26일까지 ‘윈터 마켓’이라는 이름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이곳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는 오르골, 스노볼, 장식품과 선물 등이 판매되고 쿠키, 터키 샌드위치, 핫도그, 학센 등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참여형 행사도 진행된다. 유럽의 거리 축제를 콘셉트로 버스킹 및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24일에는 특별한 주점 이벤트가 기다린다. 크리스털의 전설로 불리는 프랑스 브랜드 ‘바카라’의 작품인 트리와 동화 속 산타 마을로 꾸며진 윈터 마켓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잊지 말자.

DDP&서울광장 **2018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서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선다. 이번 행사의 부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마켓을 찾은 사람들이 각종 상품과 이벤트 등으로 즐길거리를 선물 받고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배포한 선물 상자에 구입한 물건 등 원하는 것을 담으면 소외계층에게 물품이 전달된다. 또한 밤낮으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푸드트럭 케이터링 서비스를 선물할 수도 있다.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살린 서울광장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마켓 기간 내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세계 각지의 먹거리를 살은 푸드트럭 등을 선보인다.



기간 12월 22~31일 | 시간 오후 3~9시(토~화), 오후 5~10시(수~금) | 문의 120, www.bamdokkaebi.org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8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기간 12월 1~23일(월요일 휴무) | 시간 오후 1~7시 | 문의 @millionarchive(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26길 11

밀리언 아카이브 **크리스마스 스웨터 숍**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크리스마스 쇼핑을 원한다면 성수동의 밀리언 아카이브를 찾아가보자. 빨강과 초록 그리고 트리와 눈사람 무늬가 가득한, 귀여우면서도 약간은 촌스러운 크리스마스 스웨터가 40여 평 남짓한 공간에 꽉 채워져 있다. 밀리언 아카이브는 콘셉트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빈티지 매장이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이를 정도 개점하는데 하나의 품목을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판매한다. 크리스마스 스웨터 숍처럼 원피스 숍, 하와이언 셔츠 숍 등이 비정기적으로 문을 여는 식이다. 컬러, 패턴, 소재가 각기 다른 수천 장의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따뜻하고 포근한 스웨터가 일상을 크리스마스로 바꿔 놓을 것이다. 내친김에 ‘어글리 스웨터 파티’를 기획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의 좌표 위대한 혁신은 대부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디어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컴퓨터는 누가 발명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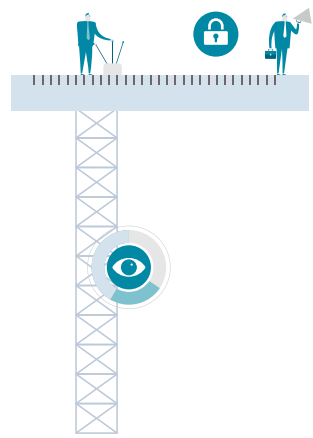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컴퓨터역사 박물관'이 있다. 주관부터 진공관 컴퓨터,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까지 컴퓨터의 탄생과 발전 등 모든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지난 11월 이곳을 방문했다가 오래전 고민이 다시 떠올랐다. 컴퓨터는 도대체 누가 발명한 것일까.

운 좋게도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술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곳에도 컴퓨터의 역사에 대한 꽤 큰 전시관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의 컴퓨터 전시관은 사뭇 달랐다. 각각 자국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역사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독일 박물관에 가면 컴퓨터는 나치에 협력한 독일 과학자들이 처음 만든 것처럼 보였다. 미국 박물관에서는 엄연히 미국의 위대한 발명품이었다. 만일 영국의 앨런 튜링 박물관에 가보았다면 분명 컴퓨터는 영국에서 태어난 위대한 천재 수학자의 발명품으로 소개됐을 것이다.

편지 카드와 키보드

세 나라의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비중 있게 소개하는 '선구자'는 19세기 영국 수학자이자 발명가인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다. 그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산기계'를 처음으로 만든 인물. 학자들은 이를 기계식 컴퓨터의 시초로 보지만 실제로 이 장치를 보고 컴퓨터를 떠올릴 사람은 드물다. 그럼에도 찰스 배비지의 이론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컴퓨터 세계의 문을 열었다.

그 이후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사뭇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앨런 튜링(Alan Turing)을 컴퓨터의 최초 발명가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더구나 컴퓨터는 탄생 이후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해



도대체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적어도 자동차나 비행기는 처음 만들어진 모양이 지금과 비슷하지 않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컴퓨터의 역사를 주도한 미국만 놓고 봐도 첫 컴퓨터에 대한 특허를 놓고 이야기가 갈린다. 기계식 컴퓨터가 진공관 컴퓨터로 바뀌고, 다시 전자식 컴퓨터로 변한다. 집적회로(IC)가 등장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 모양이 탄생한다. 모니터와 키보드가 등장한 것도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이다. 편지 카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컴퓨터 입력기의 역할을 맡았다.

각 단계를 만든 발명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론을 처음 설계했고, 어떤 사람은 조잡한 시제품을 처음 만들었다. 또 다른 사람은 완벽한 본체를 만들었으나 시장에 내놓지는 못했다. 누군가는 상용화된 제품을 처음 만들었으나, 성공의 잔은 그것을 대중화시킨 사람에게 돌아갔다.

천재들이 함께 만든 양자역학

컴퓨터의 역사를 흥미롭게 다룬 『이노베이터』의 작가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혁신은 대개 많은 출처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디어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컴퓨터처럼 복잡한 발명품은 대부분 개인의 영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협업으로 짠 직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성에서 나온다." 아이작슨의 말처럼 컴퓨터의 첫 발명가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 수많은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과 실패가 함께 컴퓨터를 만들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선구자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처음으로 확립했고, 진화론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조차 아니라고 말할 여지가 많지만,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아닌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가장 최고봉은 누구일까. 양자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만든 플랑크, 양자역학의 리더 보어, 천재로 소문난 하이젠베르크나 고양이로 유명한 슈뢰딩거. 정답은 "모두가 양자역학을 함께 만들었다"일 것이다.

흔히 창조적인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역사에서 보듯 거대한 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돈키호테 같은 천재는 잠깐 천재성을 보여주는 듯하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나 혼자 똑똑한 이보다는 다른 이들의 천재성을 흡수하거나 협업해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천재라고 볼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초기에 보여줬던 천재성이 전자라면, 아이폰을 만들었던 애플 후기의 천재성은 후자일 것이다. 그런 수많은 스티브 잡스가 모여 거대한 강과 바다를 만든다.

김상연 과학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책갈피

분위기에 맞게 혹은 흥겹게! 크리스마스에 빠질 수 없는 캐럴 음반들을 한곳에 모았다.

늘 듣던 목소리 말고, 새로 나온 캐럴 앨범 BEST 4



Be Your Christmas

스웨덴세탁소
발매일 2018. 12. 10

스웨덴세탁소의 'Be Your Christmas'는 각 수록곡이 어우러져 한 편의 겨울 동화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특히 이번 앨범은 쇼파르뮤직의 전 아티스트 볼빨간 사춘기, 바닐라 어쿠스틱, 스무살과 레터플로우가 함께했다. 로맨틱 무드의 타이틀곡 'Snowball'부터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Be Your Christmas' 등 총 5곡을 선보인다. 스웨덴세탁소 특유의 자기함과 위트를 앨범에서 확인해 보자.



A Legendary Christmas

존 레전드
발매일 2018. 10. 26

통상 10회의 그래미 수상을 자랑하는 R&B 아티스트 존 레전드(John Legend)가 달콤한 캐럴로 돌아왔다. 16곡이 담긴 앨범은 'Silver Bell'과 같은 고전적인 캐럴부터 재즈 느낌이 물씬 나는 신곡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핑키한 사운드의 'Bring Me Love'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등 성탄절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Happy Xmas

에릭 클랩턴
발매일 2018. 12. 07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에릭 클랩턴(Eric Clapton)의 크리스마스 앨범. 그의 음악 인생 최초로 발표한 이번 음반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시즌 송과 에릭 클랩턴의 자작곡들을 선보인다. 유명 프로듀서 사이먼 클라이미(Simon Climie), 지휘자 이소벨 그리피스(Isobel Griffiths)가 이끄는 클래식 현악팀과 함께 완성한 앨범은 우리가 쇼핑몰에서 늘 듣던 음악과는 차원이 다르다.



This Christmas Day

제시 제이
발매일 2018. 10. 26

놀라운 가창력과 표현력을 지닌 팝의 여제 제시 제이(Jessie J). 그녀가 새롭게 발매한 이번 앨범은 'Santa Claus is Comin' to Town' 'Silent Night' 등 대표적인 캐럴이 담겨져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보이즈 투 맨(Boyz II Men), 베이비페이스(Babyface)의 피쳐링 곡까지 포함돼 있어 팬들에게는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앨범이 될 것이다.



18.12.21 ~ 19.04.01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앤디 워홀도 사랑한 유럽의 전설적인 캐릭터

20세기 전설적인 캐릭터 '땡땡(TinTin)'이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소개된다. 90년간 유럽을 대표한 만화 '땡땡의 모험'은 50개 언어로 출간돼 60여 개국에서 3억 부 이상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에르제:땡땡展'은 작가 에르제를 조명하고 땡땡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 전시로, 땡땡에 관한 초기 작품부터 현재까지 오마주 되어 다양하게 재생산되고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미 전 세계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땡땡의 모험'은 만화 작품 역사상 최고의 낙찰가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번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울 특별전은 유럽에서 보여줬던 작품과 전시 구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오리지널 드로잉과 회화, 사진, 영상 작품 등 총 477점을 선보인다. 에르제의 연대기 순과 땡땡의 각 여행지를 주제로 크게 10개의 전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니 찬찬히 살펴보자.



1 Le Vingtième Siècle The Newspaper of all Poster(1934), 2 The Adventure of Tintin (The Broken Ear) Petit Vingtième Cover Illustration (January 30, 1936), 3 Mr.Pump's Car, 4 The Adventure of Tintin (Explorers on the Moon) (1954).

